

M 재테크 Money

2005년 신기원(新紀元)을 열었던 증시가 막판까지 불꽃을 태우며, 새해 증시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전문가들은 병술년(丙戌年) 연초 증시도 우호적인 수급의 영향으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월 둘째주부터 본격화될 기업들의 4·4분기 실적 발표가 연초 상승 분위기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유가증권시장** = 2005년은 한국 증시 신기원(新紀元)의 해였다.

1983년부터 시가총액 식으로 전환돼 발표되고 있는 코스피지수는 그동안 국내 증시의 저항선으로 작용해왔던 1,000선을 가볍게 돌파, 1,300선까지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네 자릿수 지수 시대를 열어젖혔다.

코스피지수는 12월 마지막 주까지

외국인·기관투자자 1,400선 ‘쌍끌이’

기업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1월효과’

내수회복 유통·건설 등 관심 가져볼만

총 9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우며, 사상 최대치(1379.37)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작년 한해 상승률은 무려 52.7%.

전문가들은 2006년의 문을 여는 이번 주에도 새해 증시에 대한 기대와 견조한 수급을 바탕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은 시장 수급의 핵으로 부상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초 ‘쌍끌이’ 매수세에 기대를 하고 있다. 우선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투신권의 순매수가 이어질 것이며, 올 한해 매도세로 일관해온 외국인들도 과거 정황상 연

초에는 매수에 가담하리라는 것이 기관투자자들의 기대다.

2001년 이후 5년 간 외국인들은 1월에는 한 차례도 순매도를 기록하지 않았다.

업종별 꼼꼼한 분석 필요

대우증권 한요섭 애널리스트는 “이제는 외국인들이 연말 정리 차원에서 팔았던 주식을 1월에 다시 사들이는 매매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수수가 이어질 것이며, 올 한해 매도세로 일관해온 외국인들도 과거 정황상 연

연초 증시 강세장 기대

이런 우호적인 수급 기대 속에 1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2005년 4·4분기 실적발표와 2006년 실적 전망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업종별로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강세를 나타낸 전기전자와 함께 내수 회복의 수혜가 기대되는 유통, 건설, 증권, 보험 업종이 투자 유망 업종으로 추천됐다.

◆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은 작년 한해 지수가 배 이상 급등하며 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지난해 11월 21일 연속 상승 랠리 후 ‘황우석 쇼크’라는 대형악재에 도 만만치 않은 상승여력을 보이며 700선 재등장에 성공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작년 한해 랠리를 주도했던 중·소형주 강세가 상대적으로 누그러지는 한편, 가치주와

실적우량주 위주의 투자 흐름이 코스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가치주’ 코스닥 주도할 듯

대우증권 신동민 연구원은 “연말 조정은 올해 성장을 위한 성장 톤으로 판단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위험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특히 유·무상증자 및 신규상장 기업의 보호·예수 불량 부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의 거품붕괴 등 시장에 가해질 수 있는 충격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연초 코스닥시장의 주도업종으로 신규 통신서비스 실시의 수혜가 예상되는 통신장비업종과 콘텐츠 관련주 등을 꼽았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신년 벽두 각 대기업이 ‘약진 앞으로’를 외치며 또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특히 주요 기업은 고유가 등 악재를 뚫고 수출 증가세와 내수 회복 흐름에 기대를 걸며 글로벌 일류기업 비상과 내실경영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앞다투 밝히고 있다.

새해 기업경영 키워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경영 키워드 붐** = 1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병술년 경영 키워드는 ‘세계 일류기업’, ‘나눔경영, 정도경영’으로 대변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0월 각 계열사가 새해 사업계획을 짤 때 시급적으로 삼겨 될 경영 방침을 올해와 같은 ‘글로벌 일류기업 구현’으로 정해 하달했다.

삼성은 이를 토대로 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사사업무 고도화와 미래를 대비한 신(新)수출 사업 발굴, 글로벌 차원의 사업거점 최적화와 글로벌 경영체제 공고화, 우수인력 확보와 육성 등을 제시했다.

SK그룹은 지난해 발표한 (계열사간) ‘따로 또 같이’ 경영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문화, 경영기법과 경험, 정보 등 소프트웨어 확장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경영’, ‘내실경영’, ‘품질경영’ 등을 핵심어로 내세웠고, 포스코는 독자 기술로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제품을 만드는 ‘기술 리더십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 **사업계획 구체화** = “다시 된다” = 현대그룹은 변화와 성장이라는 경영 슬로건에 걸맞게 현대건설 인수 추진 등 사세 확장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해 글로벌화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올해에는 차기 동력인 건설 부문에서 대우건설 매입을 통해 거대 중공업 그룹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LG그룹은 올해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디지털TV, 정보통신 등 중점 육성사업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과 선행 투자를 통해 시장지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 전자정보통신분야 ‘글로벌 톱3’ 진입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순이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국내 기업 최초로 도쿄증시에 주식을 상장하고, 경영실적도 개선한 데 이어 금년에는 국내 업계에 위협적인 중국 철강산업 성장세 등을 감안, 기술과 원가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작년 주식형 펀드

25조원 신규 유입

2005년 한해 범주식형펀드에 총 25조원 이상의 자금이 신규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순수 주식형펀드 수탁고는 25조9천623억원으로 2004년 연말에 비해 17조4천107억원 늘었고,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수탁고는 42조3천806억원으로 7조8천287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5년 범주식형펀드 수탁고는 25조2천394억원이 늘어났다.

주식형펀드 수탁고는 12월 한달간 25조9천623억원으로 무려 3조5천952억원이나 늘어 월별 기준 연중 최고 증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월별 수탁고 증가액을 살펴보면 ▲1월 2천477억원에서 ▲2월 1조340억원 ▲3월 7천560억원 ▲4월 8천110억 ▲5월 1조2천85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6월에는 3천2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7월 6천347억원 ▲8월 1조3천610억원 ▲9월 2조1천990억원, ▲10월 3조2천23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수탁고 증가액은 11월 들어 1조9천200억원으로 급격히 줄었다가 12월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지상파 DMB폰 새해를 연다’

LG필립스



삼성전자가 혁신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기능을 갖춘 지상파 DMB폰인 ‘스윙 DMB 폰(모델명 : SPH-B2300)’을 출시했다. ‘스윙 DMB폰’은 휴대폰 액정부분이 90도/180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스윙형 디자인을 채택해 DMB 감상에 적합하다. /연합뉴스



LG필립스 LCD가 파주 7세대 생산라인(유리기판 사이즈1950 X 2250mm)에서 첫 42인치 양산제품을 선보이며, 2006년 새해 새 아침을 열었다. 사진은 42인치 8장을 만들 수 있는 7세대 TFT-LCD 기판(사이즈1950 X 2250mm)의 모습. /연합뉴스

작년 수출 2,847억달러

전년보다 12.2% 증가... 3년연속 두자릿수 성장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2천847억달러, 수입 2천612억달러로 사상최대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3년 연속 두자릿수의 수출입 성장률을 기록하고 235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5년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천847억달러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고 수입액

은 2천611억5천만달러로 16.3%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235억5천만달러에 달해 전년의 293억8천만달러보다 줄기는 했으나 2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2003년의 19.3%, 2004년의 31%에 이어 작년도 10%를 넘어 무역규모도 1천억달러를 달성한 1988년 이후 처음 3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연초 정부가 전망한 2천850억달러에 거의 근접했으나 무역수지 흑자는 전망치인 280억달러에 못미친 수준이다.

무역규모는 5천459억달러에 달해 2004년 4천억달러를 넘은지 1년만에 5천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에서 1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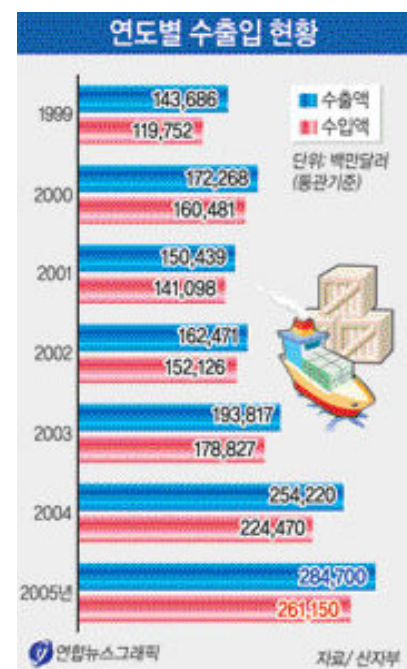
째로 5천억달러대에 진입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자동차(11%), 반도체(13.5%), 일반기계(32.1%), 석유화학(21.9%), 선박(12.7%), 철강(25.4%) 등 대부분의 주력품목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했다.

반도체는 낸드플래시메모리 수출의 확대 등으로 301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전년에 자동차에 내줬던 수출품목 1위 자리를 되찾았고 자동차는 295억달러, 자동차부품은 85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합친 자동차산업의 수출액은 반도체를 훨씬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전년의 19.6%에서 작년엔 21.9%로 높아지면서 20%를 처음 넘어섰다.

유럽연합(EU)의 비중도 14.9%에서 16.3%로 높아지고 중남미, 아세안 등으로의 수출비중이 높아진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비중은 16.9%에서 14.5%로 낮



아져 대중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는 한편 수출지역이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수입은 원유 등 에너지 수입액이 662억달러에 달하는 등 원자재 수입이 21.9% 증가하면 수입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자본재(11.7%), 소비재(12.7%) 수입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16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2 34 36 40 42 45	44
등위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796,876,272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33,275,487
3등	5개 숫자 일치 1,517,999
4등	4개 숫자 일치 63,303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슈퍼 더블 복권 (제538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등	1억	6조 177679
2등	2천5백만	6조 177678
		6조 177680
아차상	5십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3등	3백만	각조 112433
4등	1만	각조 473,160
5등	2천	각조 65,51
6등	1천	각조 0.1, 5
행운상	기아모터지	6조 191116

주택복권 (제1461회)

등위	연식당첨금(원)	당첨번호
1등	2억	5조 249273
2등	5천만	5조 249274
		5조 249272
3등	1백만	각조 365588
4등	1만	각조 653
5등	2천	각조 94,59
6등	1천	각조 1,9,7
보너스상	스포티지	4조 213779
행운상	5백만	1등과 조가 다른번호

스포츠 복권 (제397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등	2억	6조 145787
2등	5천만	6조 145786
		6조 145788
3등	1백만	각조 104404
4등	1만	각조 482,756
5등	2천	각조 20,90
6등	1천	각조 3,4,9
월드컵상	스포티지	4조 118575
행운상	5백만	1등과 조가 다른번호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에스앤제이글로벌	[정규직/전남 광양]자동차기계 Engineer	초대졸/경력1년	2,400~2,600	01/04	02-706-2119
㈜이프로	시스템관리 운영자	초대졸/경력2년	1,600~1,800	01/04	062-512-8112
㈜호리신한증권	임원 비서 전문직 (광주)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5	02-3772-2153
영창실업	정규직 매장관리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1/05	011-626-1674
제이앤비컨설팅	LG카드 DM센터/오토콜 상담직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1/06	062-512-5864
㈜해주주력건설	[건축/건설]2006 정규직 경력사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1/06	062-652-4848
㈜호리기공	기계설계직/회계,경리/용접/선반/밀링/페인트도장공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6	062-953-3666
광주서광교회	서광교회 사무간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6	062-512-6222
㈜E-라이프매거진	elife매거진 광주지사 편집/광고영업 신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7	011-631-4894
㈜주신전자	자재관리 경력직	초대졸/경력1년	1,200~1,400	01/07	062-941-3852
㈜피루	일본지역 해외영업 및 거래처관리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1/10	061-759-5193
한국외국어교육컨설팅	정규 사무직과 영어 강의 가능한 직원 (여수대학교)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1/10	031-876-0546
㈜HRN호남지사	[SKT 광주,순천,목포] 통신기술직 남직원	대졸/경력무관	1400~1600	01/04	062-529-2671
대신전자통신사	웹 디자인 프리랜서/java 프로그램 개발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1	062-223-8282

<광주접촉처> 512-6210 제공

올 '1가구 1자동차' 보유국 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전망 2006년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가구당 1대' 기록을 돌파할 전망이다.

1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05년 1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천535만7천169대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 추계 1천553만9천988가구 수에 비해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3년 12월 1천458만7천333대, 2004년 1천493만4천474대 등으로 매년 35만대 이상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1가구당 1대' 보유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승용차는 2003년 1천27만8천940대, 2004년 1천62만574대에서 작년 11월말 현재 1천107만6천617대로 45만대 정도 늘어 1.4가구당 1대 꼴이다. 승합차는 2003년 124만7천95대에서 2004년 120만4천625대, 2005년 11월 현재 113만1천13대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